

## 독일통일 이후의 좌파지식인들과 대안적 주도사상으로서 극단적 구성주의\*

허창운

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동독의 저명한 여류작가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의 단편 《남는 것 *Was bleibt*》의 출판을 전후해서 특히 독일문인/좌파지식인들 사이에서 확산된 1990년의 문학 논쟁을 오늘의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함과 아울러 독일통일이 가져온 일종의 문화충격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도 함께 추구한다.

민족적 환희로서 구가된 독일의 통일이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정신적 갈등과 경제적·사회적 문제점들을 배태했음을 개관한 다음(제2장), 문제의 문학논쟁이 노정한 갈등구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제3장). 결국 이 논쟁은 한 사람의 작가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독일좌파지식인들의 정치적 역할 및 미학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포괄적인 토론의 일환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논쟁의 성격을 지식인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제5장에서는 '신조의 미학'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미학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통일의 부정적 갈등현상을 포괄적으로 문화충격으로 진단함으로써 그 원인과 대응책을 제시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으로서 일종의 극단적 구성주의가 대안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한다.

### 1. 머리말

독일이 통일된지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문필가들과 문학비평가들은 여전히 여러 관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갈라서 버렸는지도 모른다.<sup>1)</sup>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의 단편 《남는 것 *Was bleibt*》을 둘러싸고 벌어진 1990년의 문학논쟁 때문에 독일의 지식인 전체는 한꺼번에 열병을 앓는 가운데 지난날의 '악몽'을 되새기면서 뼈아픈 자기성찰의 시간도 가졌다. 또 그런 와중에 느닷없이 독일의 戰後文學 전체를 무효화하는 선언을 경청해야만 하는 순간도 있었다. 말하자면 문제는 단지 크리스타 볼프의 件만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과 미학, SED(사회주의통일당) 정권과 나치 국가, 지식인들의 역할과 좌파들의 '유토피아 상실', 동독문화를 다루는 서독 문학비평계의 태도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위상정립에 관한 토론이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이 탄생한 통일국가가 자신의 正體性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홍역과도 같은 것이었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를테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펜클럽도 여전히 통합하지 못하고 두 개의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실로 독일이 통일되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엔 새로운 한계와 경계선을 긋는 일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 과거정산 및 자기발견의 문제와 관련해서 복잡한 양상의 부차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붓물처럼 쏟아진 것이다.<sup>2)</sup> 결국 이러한 양상의 문제 제기에 안성맞춤의 계기를 부여한 것이 1990년 당시의 문학논쟁이라고 할 때, 이를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차분히 그 진의를 곱씹는 일은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의 미래구상을 위해서도 하나의 교훈적 豫表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어진 논제의 시의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II. 문학논쟁과 內獨葛藤

궁극적으로 독일통일이 독일지성계에 던진 곤혹스러운 문제, 즉 정신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문학논쟁은 독일 좌파지식인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특히 舊동독 문학과 문인들의 역할에 관한 1990년의 논란이 지금도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996년 말에는 슈테판 헤르믈린(Stephan Hermlin)의 과거행적을 둘러싸고 또다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헤르믈린이 독일언론의 공격을 받은 이유는 그가 동독이 몰락하기 전까지 SED 당수였던 에리히 호네커와 절친한 사이였고 또 스스로 확고한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前歷을 이데올로기적 여건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즉 헤르믈린은 나치집권시기에 작센하우젠 소재 유대인집단수용소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고 자신의 전력을 위조함으로써 스스로 나치의 희생양인 듯 보이게 했고 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신분으로 위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헤르믈린 케이스와 동일한 맥락에서 舊동독작가들에게 진가된 도덕적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당시의 논쟁은 부분적으로 동독과 서독간의 보편적 갈등과 책임추궁의 문제로 확산됨으로써 서로의 반감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통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독인들은 동독을 잘 안다고 믿었다. 70년대 초부터 적대적인 형제들간의 접촉은 계속 증가했고 동독을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되었다. 상대방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자유로이 전화까지 걸 수도 있었다. 여러 분야에서 정치적·사회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양독간의 상품교역도 한층 활발해졌다. 그러다가 급격한 통일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동독정권의 경제적·도덕적 파탄의 참된 규모가 세상에 알려지자 동독을 잘 안다는 전문가들까지도 아연해지고 말았다. 예컨대 동독에서 환경파괴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 사회간접자본의 참상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운영이,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철저한 통제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차원으로 公衆에게 알려졌을 때, 더구나 동독주민들 다수가 슈타지(국가안전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2) Wilhelm Voßkamp, "Literatur und Zeitgeschichte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 Zur gegenwärtigen Literaturdiskussion in Deutschland", *AuH-Magazin* 65/1995, S. 30f. 참조.

는 사실까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만다.

이런 와중에 동독문학도 급속도로 비판의 집중사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공격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문제의 단편 《남는 것》에 대해 울리히 그라이너(Ulrich Greiner)가 《차이트 *Die Zeit*》지에서 취한 비판적 입장과 프랑크 쉬르마허(Frank Schirmacher)가 《FAZ》(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지에서 표명한 신랄한 비평태도였다. 크리스타 볼프는 동독을 대표하는 여류작가로서 동독의 실상에 대해 가끔은 온건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대체로는 사회주의 동독의 변호인이요 옹호자로서 언제나 그 체제를 보다 나은 代案으로서 예찬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작품 《남는 것》에서는 입장을 바꿔 스스로 인간경시의 SED 독재체제의 희생물로 자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크리스타 볼프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기회주의와 위선에 대한 비난이 금세 동독문학의 다른 주도적 대변인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 슈테판 하임(Stephan Heym), 슈테판 헤르틀린, 볼커 브라운(Volker Braun), 하이너 뮐러(Heiner Müller), 크리스토프 하인(Christoph Hein) 등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선에서 크리스타 볼프처럼 동독 경찰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독의 문단에 관한 정보가 점점 더 많이 알려질수록 그만큼 더 분명히 동독문학은 부당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신적 공허와 억압을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위탁문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동독문학의 엘리트들은 ‘현실사회주의’의 사막 위에 ‘신기루’를 구축하고 국가테러를 위한 사이버 도덕적 변론을 제공하는 代價로써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었고 또 다수의 이득도 챙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독 슈타지의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그러한 논란은 다시 한 번 새로이 절정에 달했다. 다수의 작가들은 동독을 위한 위선의 거짓행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독 비밀경찰을 위한 소위 ‘비공식 협조자’로서 활동했다는 사실도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은 덜 기회주의적인 동료들을 중상모략하고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첩보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예컨대 동베를린의 프렌츠라우어베르크를 중심으로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하위문화의 前衛性을 대변한 작가 자샤 안더존(Sascha Anderson)의 슈타지 연루설은 그 대표적 케이스에 속한다. 그런 식으로 동독작가들의 다수는 스스로 동독 경찰국가의 프락치 역할로 전락하는 도덕적 파탄의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동독작가들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서독 평단의 공격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판자와 고발자들이 승자의 오만감을 만끽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크리스타 볼프 같은 동독의 위대한 작가들이 서독에서도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서방의 무자비한 비정의 사회가 지닌 온갖 결함에 비해서 사회주의적 연대감으로 각인된 짐짓 인도주의적인 동독사회를 훨씬 더 나은 사회로 公準했다. 또 많은 작가들은 사회적 책무와는 무

관하게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예술적 자유를 스스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독문학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점은 통독 이후의 內獨관계를 특징짓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1989년 말에서 1990년 초까지 독일 안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자유에 대한 열광은 이제 그 미몽에서 깨어나 각성과 냉철함을 되찾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경제적 비정함을 대변하는 돈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재통일에 쏟아 부은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舊동독에 흘러 들어간 돈은 물경 11,000억 마르크화(DM)에 달한다. 이 엄청난 비용은 연방정부가 구동독의 생활수준을 단기간에 서독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지 않도록 막아보고자 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지양하는 일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해된 독일 재통일의 벽두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구동독에서의 생활수준을 신속히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만사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독일경제가 오늘날 거의 43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단지 통일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특히 독일에 대해 엄청난 문제제기를 몰고 왔다. 게다가 1999년부터는 유럽에 ‘유러’(Euro)라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된다. 독일의 임금수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데다가 마르크화의 가치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타 화폐에 비해 평가절상된 상태에 있었다. 독일도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상황이 어떤 어려움을 야기시켰는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아무튼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현명한 처방을 지금 독일정부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 역시 우리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III. 크리스타 볼프와 독일의 ‘문학논쟁’

사실 1990년 6월초 크리스타 볼프에 대한 침예한 공격으로 불붙기 시작한 문학논쟁은 전후 독일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公衆의 주목을 끌었다. 오락문예란에서 촉발된 문제의 논쟁은 금방 큰 일간지 정치면 사설란에서도 파문을 일으켰고, 그 반향은 독일과 유럽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아무튼 단기간에 논쟁에 가담한 寄稿의 수가 폭주하다시피 했고 그 열기 또한 폭발적이었던 이유는 시대사적 사건의 소용돌이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감으로써 그 전개가 참으로 역동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1990년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은 너무나 엄청났으므로 그 영향을 받아 6월 5일 출간된 크리스타 볼프의 작품은 독일 비평계에서 본래의 의도와는 거의 무관한 의미들을 해독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sup>3)</sup>

3) Thomas Anz(Hg.), *Es geht nicht um Christa Wolf - Der Literaturstreit im vereinten*

1979년 여름 집필해서 1989년 11월에 수정 보완된 이 텍스트의 줄거리는 크리스타 볼프와 혼동할 정도로 닮은 한 여류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겪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즉 그녀는 국가안전요원의 감시를 받는 처지에 있다. SED 정권이 붕괴되고 서구 민주주의에로의 전환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자신을 전체주의 체제의 반대자나 희생자로 묘사하는 것은 얼핏보기에도 자기합리화의 인상을 풍길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작품이 당시의 시대조류에 편승해서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한 여류작가의 시도로 읽혀진 것은 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독 비평계에서 대체로 존경받아온 그 여류작가가 느닷없이 공격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제까지 그녀가 향유했던 정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작품의 질까지도 박탈당하는 결과가 빚어졌던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그런 식의 자격박탈은 서독의 우월성과 동독의 열등감을 문학의 영역에서도 과시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크리스타 볼프에 대한 서독 비평계의 공격은 SED 국가의 붕괴와 동독문학의 붕괴가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크리스타 볼프의 소설은 논쟁의 문제권을 처음부터 하나의 텍스트, 한 사람의 여류작가를 초월하여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을 따름이다. 논쟁에 부쳐진 수많은 기고들은 크리스타 볼프를 ‘단지 하나의 암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동독작가 라테노(Lutz Rathenow)는 ‘연방공화국 시민들은 철저히 크리스타 볼프를 옹호해야만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sup>4)</sup> 이처럼 무엇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말하자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그 논쟁에서 문제가 되었던 셈이다.

우선 언급할 수 있는 중요 쟁점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첫째, 이번의 논쟁은 지난날의 망명문학과 국내망명작가들과 관련해서 벌어진 논쟁의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크리스타 볼프가 동독에 남았던 다수의 다른 작가동료들을 대변해서 이제 서방으로부터 받은 침예한 공격은 1945년 9월 당시 토마스 만이 ‘나는 왜 독일로 돌아가지 않는가’라는 표제로 발터 폰 몰로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독일의 나치독재기간에 출간된 책들에 내린 가혹한 판결을 연상시키고도 남았다. 게다가 또한 나치즘과의 논의를 통해 친숙해진 견해들과 논거 및 표제어들도 동원되었다. 이때 거론된 테마는 ‘과거극복’이나 ‘슬픔의 불가능성’, ‘죄’와 ‘억압’, ‘정신과 권력’의 관계, ‘권력의 비호를 받은 내면성’ 혹은 ‘권위주의적 성격’ 등이었다. 이런 와중에 심지어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논거까지 채등장했다. 동독을 나치정권과 비교하는 일이 금기사항은 아닐지라도 역시 동일시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동독 인민은 유태인의 聖殿을 방화한 적이 없으며, 총체전도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독 사회주의는 광기의 나치 전체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동독을 거듭 나치

Deutschland,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95, S. 7-28 참조.

4) 잡지 《쿠르스부흐 Kursbuch》 1990년 9월호 참조.

정권과 비교한 쉬르마허도 자신의 주장에는 약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동독을 떠난다고 모두가 자신의 언어고향과 독자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독일 문학논쟁에서는 지난날의 갈등구도가 반복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독으로 넘어간 반체제작가들과 동독에 남았던 작가들간의 대결구도가 그러했다. 예컨대 동독에 남았던 작가들은 대부분 침묵함으로써 시민권을 박탈당한 동료작가들의 아픔을 계속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1977년 4월 동독을 떠나야 했던 쿤체(Rainer Kunze)는 특히 슈테판 헤르를린을 비난했다. 하지만 크리스타 볼프에 대한 비판만은 신중하고 소극적이었다. 그녀의 인격과 그녀의 작품에서 촉발된 논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반체제인사들도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다. 특히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은 1990년 6월 그 논쟁을 야기시킨 그라이너와 쉬르마허의 기고들의 정당성을 강조해서 확인해주었다. 한스 놀(Hans Noll)도 크리스타 볼프를 비판하는 서독비평가 편을 들었다. 그는 이들이 동독 문화계의 이면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녀를 혹평한다는 향간의 여론에 반기를 들었던 반체제 소장파 중의 한 사람이다. 이처럼 크리스타 볼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반체제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스탈린 체제의 희생자로서 囹圄의 신세가 되거나 추방당한 지식인들은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 크리스타 볼프를 반대하는 서독비평가들을 비난했다. 예컨대 코펠레프(Lew Kopelew)와 양카(Walter Janka)는 그 여류작가에 대한 공격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또 여러 관점에서 한스 놀과 비교될 수 있는 삶의 역정을 걸어온, 비교적 젊은 세대의 아렌츠(Martin Ahrends)도 크리스타 볼프에 대한 놀의 관정에 반대했다.

아무튼 이런 관점과는 다른 차원에서 두 번째로 거론될 수 있는 쟁점으로는 세대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전의 사안으로서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를 묻는 물음은 곧 세대 문제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작가 역시 아렌츠였다. “동독을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 그들[즉 구세대의 작가들]은 나에게 참고 머물라고 중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들은 실패, 냉소주의, 애처로움, 알코올중독의 예시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뇌가 나로 하여금 떠나도록 부추겼다. 내가 그들을 멀리해서가 아니라 나는 다른 세대에 속했고 또 최후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었다”(1990년 5월 25일자 《차이트》). 1957년 동베를린에서 탄생했지만 1988년 이래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서정시인 우베 콜베(Uwe Kolbe)도 역시 세대 특유의 사고방식을 강조했다. 즉 크리스타 볼프처럼 戰後에서부터 80년대 깊숙히까지 영위하고 있는 삶의 기반, 즉 공동으로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 비록 그 건물이 부족함과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더 나은 독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동독에서 성장한 문필가들의 가장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독에서도 문학적 ‘세대갈등’의 역사적 의미를 거론한 사람은 역시 1959년생의 문학 비평가 쉬르마허였다. 그런 의미부여에 따르면 귄터 그라스(Günther Grass), 발터 옌스(Walther Jens), 페터 헤르틀링(Peter Härtling), 크리스타 볼프 또는 슈테판 하임 등으로 대표되는 좌파지식인 지도층에 대치해서 젊은 세대의 작가들과 비평가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노화해서 자기 자신의 기념비로 굳어져 버린 구세대의 작가적 권위의 추종압력과 그 영향권을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은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라이너는 그 논쟁을 세대갈등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입장과는 공식적으로 다소간 거리를 둔다. 그것이 반체제인사들과 동독에 남은 인사들 간이든, 아니면 노장세대와 소장세대 간이든, 또는 동서독의 문필가들 사이든, 혹은 좌우지식인들 사이든, 아니면 남녀비평가들 사이든 여하간에 논쟁의 戰線을 분명히 구분하려는 시도들은 보다 정확히 관찰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패거리 정신과 고착화된 전선들은 논쟁에서 드러나는 생산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불투명성과 개방성의 형태로 종잡을 수 없는 모순들을 수반하고 있는 독일 문학논쟁은 문화적인 방향설정을 과정적으로 다시 구축해야하는 작업에 기여한다. 그래서 각별히 다음 두 가지의 문제권에 대한 성찰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독일 지식인들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도덕과 미학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 IV. ‘지식인’에 반대하는 투쟁

이처럼 문제의 논쟁이 이중적 의미에서 ‘지식인들의 싸움’으로 화해버린 것은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식인들간의 싸움인 동시에 또한 ‘좌파지식인들’을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다.<sup>5)</sup> 오늘날 독일에서 지식인들을 거론할 경우 대개는 좌파지식인들을 칭한다. 특히 크리스타 볼프를 신랄하게 공격한 사람들이 ‘지식인’이란 단어를 꼭 모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폄하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볼프에 대한 공격이 처음부터 독일지식인들을 비롯해서 독일 통일과정을 회의적으로 본 그들의 통일관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문학논쟁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맥락에서 ‘지식인’이란 단어의 변천사를 확인하는 일은 파급효과가 큰 문학논쟁의 의미를 특정 유형의 정치적 참여작가나 기고가들을 둘러싼 논쟁으로서 합당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오늘날 이 개념이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지난 세기의 90년대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연유한다. 프랑스에서는 ‘지식인’이란 개념이 매우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Alfred Dreyfus)에 대

5) Thomas Anz(Hg.), 같은 책, 161쪽 이하 참조.

한 의심스러운 유죄판결이 있는 후 언론출판계가 벌인 성공적인 구명운동 덕택으로 재판의 재심이 관철되고 급기야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데 공헌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작가 에밀 졸라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개입으로 진실과 정의가 성공을 거둠으로써 그 재판은 모든 공중 앞에서 신빙성 없는 국가권력을 질타하는 모델케이스가 됐다고 프랑스의 자유주의 좌파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신’의 승리는 문학 지식인들의 성장하는 사회적 자의식에 대한 핵심적 체험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대표적 케이스를 상정한다면 우리는 단연 하인리히 만(Heinrich Mann)을 연상할 수 있다. 그는 졸라를 모범으로 한 지식인의 개념과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1910년 이래 자기 나름으로 정치적 참여 작가의 젊은 세대를 위한 표본이 되었다. 만의 에세이 <정신과 행동 Geist und Tat>(1911)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작가들이 열광적으로 채택한 핵심문장은 “배타적인 주인신분계층에 접근하는 지식인은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였다. 하지만 보수적인 문화지식인들은 그에 반해 ‘지식인’이란 개념을 각별히 긍정적인 의미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악의적인 이 단어, 유대적으로 야한 빛을 발하는 이 단어를 버릴지어다! 독일정신을 가진 사나이가 어찌 지식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그들은 외쳤다. 이러한 문구들은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유행함으로써 나치국가에서 사용된 ‘지식인 개념’을 선취했다.

1990년 문제의 그 문학논쟁에 뛰어든 많은 기고들은 앞에서 암시한 그러한 역사적 연관관계에 거의 개의치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볼프의 비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녀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20세기의 지식인들에게 전형적인, 비판적 참여적 태도로써 발언하긴 했지만, ‘독일의 지식인들’에 관해서는 대체로 폄하적인 어조의 글을 씀으로써 그 개념 자체는 분명 부정적인 성격을 얻었던 것이다. 제르케(Jürgen Serke)는 볼프를 공격하는 1990년 6월 23일자 《벨트 Die Welt》지의 기고문에서 “동독 지식인들의 자기기만”과 “서독지식인들의 치욕”을 거론했다. 이로써 그는 그 논쟁에서 누가 자신의 궁극적인 대척자인지를 암시했다. 볼프에 대한 공격이 그녀 개인을 뛰어넘어 지식인들 전체를 목표로 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1990년 7월 2일자 《벨트》지에 발표한 쿤체와의 대담이다. 제르케는 여기서 이렇게 묻는다. “왜 독일 지식인들은 통일된 독일에 대해 그렇게 난처해하는 걸까요?” 하지만 쿤체는 ‘지식인들’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일에는 반대한다. 그는 특히 독일 지식인들이 자기완결적인 사고체계로 기우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장난감 주석병정들’처럼 요지부동으로 그런 사고체계 속에 머물며, 비록 외부의 현실이 지옥일지라도 녹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담의 후반부에서 쿤체는 지식인들이 겪는 전형적인 위험부담을 이렇게 정의한다. 즉 지식인은 실존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세계를 문제시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지식인의 현존”이 지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식인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안일을 창출하지 않으며, 또 거기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혼자요 고독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안일을 얻기 위해 지성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는 그 자신이 속했



던 대열로부터 멀시와 경멸을 모면할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1990년 6월 2일자 《FAZ》에 실린 쉬르마허의 볼프에 대한 공격은 이미 양쪽 국가의 독일 지식인들 전체를 겨냥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쉬르마허는 벌써 제 2제국과 제 3제국에서 지식인들이 실패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나치국가는 지식인계급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쉬르마허는 나치당원들에 의해 ‘지식인’으로 매도당한 자들이 1933년 이후 망명해야만 했거나 혹은 집단수용소에서 사살당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의 지배에 항거한 자들이 거론되는 경우 언제나 초지일관 ‘지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문필가’나 ‘예술가’ 또는 ‘작가’라고 했다.

이에 비해 1990년 7월 27일자 《차이트》지에 발표된 그라이너의 비판은 그 성격이 좀 다르다. 그는 제 3제국의 지식인 적대감에 관해 논평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한때 사회주의 이념을 신뢰했거나 아직도 그 이념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좌파지식인들이 결정적으로 부당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사회주의의 붕괴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FAZ》의 기고들이 지닌 어조는 동독의 작가들이 정권에 걸림돌 역할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존경을 받았지만 독일통일의 행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 표명이 있는 이래 그들의 지위는 격하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 행복을 방해한 서독의 ‘지식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받았다. ‘지식인들’이 적군과 테러에 동조하거나 그 테러에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은 70년대 말 이래 《FAZ》에서의 지식인 적대감이 크리스타 볼프나 독일통일, 또는 골프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서만큼 그렇게 격렬하게 표출된 적은 없었다. 결국 볼프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기고들은 ‘지식인들’, ‘좌파지식인들’, ‘독일좌파’, ‘68세대’ 및 ‘47그룹’을 공격하는 일련의 시리즈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쉬르마허 자신도 ‘크리스타 볼프 사건’에 ‘표본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여류작가는 많은 것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환경보호운동과 평화운동을 거쳐 유럽공산주의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한 기대와 희망의 담지자가 될 수 있었던 여류작가이며, 또한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완벽하게 현실에 대해 기만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例示라고 했다. 또 좌파이데올로기에 유혹당한 思考의 표본이요 또한 “나치즘을 경험한 후 문필가는 요지부동으로 반권위적이고 비판적인 신조를 간직하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굳건히 지조를 지킨다는 ‘전후의 전설’을 표본적으로 뒤엎는 하나의 反證이라고 했다. 나아가서는 독일통일의 진행 과정에서 역시 끝까지 자신의 과제가 무엇보다도 동독을 구제하는 일에 있다고 본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1990년 6월 18일자 《FAZ》 참조).

아무튼 연방공화국이 달성한 성공사의 절정으로서, 그리고 사회주의 및 ‘좌파지식인

들'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로서 10월 3일을 축하하는 요하임 페스트(Joachim Fest)의 기고는 '국가간의 평화 협상에 있어서 좌파지식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특히 이 연방국의 탄생이 복고주의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경향을 그토록 많이 활성화시킨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고뇌'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 공화국의 지속적 성공은 그 모든 유토피아적 대안들을 공동화시켰다고 확인한다 (1990년 9월 29일자 《FAZ》 부록). 또 예센(Jens Jessen)도 역시 '두 개의 국가관을 지지하는 인물로서 독일지식인'을 거론한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한 사회적 특수 신분이 거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거세된' 지식인들의 이름으로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와 하이너 뮐러, 슈테판 하임과 귄터 그라스, 발터 엔스, 크리스타 볼프와 귄터 가우스, 프란츠 크사버 크뢰츠, 슈테판 헤르틀린과 막스 프리쉬, 귄터 발라프 그리고 끝으로는 '좌파교육자들의 감독 하에 교육받은 세대 전체의 대변자로서' 파트릭 쥐스킨트(Patrick Süskind)도 거명되었다.

### V. 한 시대의 종결인가?

이처럼 볼프와 관련된 '표본적 사건'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서 여러 갈래로 확산일로에 있던 논쟁이 모순점은 거의 투시되지 않은 채 1990년 10월 갑작스런 방향전환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논쟁은 결국 전후의 독일문학 전반에 관한 원론적 논의로 수렴되었다.<sup>6)</sup>

지금까지 크리스타 볼프에 대한 공격은 그녀의 도덕적 자세와 성향 및 정치적 信條에 근거한 것이고, 작품이 지닌 미학적 질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 몇몇 비판자들이 이제는 전후독일의 지배적인 문학과 비평을 다음의 논거로써 전반적으로 문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전후의 독일문학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올바른 신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다. 쉬르마허는 이미 1990년 6월 2일자 《FAZ》에서 "크리스타 볼프는 예술적 케이스로서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적었다. 또 그는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종료를 기념하여 발간된 1990년 10월 8일자 《FAZ》의 일면 톱기사에서 이제 자신의 반대자들과 이들의 '문화적 분위기', 즉 좌파지식인적인 분위기를 비난한다. 그들은 사실상 미학적이고 이성적인 기준들을 신조의 기준으로써 대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의 대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요지부동으로 언제나 자유와 인간성, 희생자와 패배자, 진보와 역사의 편에서 있음을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빈정댔다. 이 논설은 쉬르마허가 10월 2일자 《FAZ》의 도서박람회 부록에 발표한 몇 가지 테제들의 성격을 보완하고 또 분명히 해주었다. 쉬르마허는 과감히 연방공화국 문학과와의 결별을 선포함으로써 독일문단에 물의를 일으키고만다. 그의 기고는 1968년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와 벨리히(Walter Boehlich)가 당시 '순수문학'과 '시민적' 문학비평의 사망선고를 내릴 때

6) 이하 Thomas Anz(Hg.), 같은 책, 189-197쪽 참조.

사용한 수사법적 전략을 따랐다. 상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그 당사자의 종말 내지 죽음을 확인하거나 예언하는 일이다. 그래서 쉬르마허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다.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의 문학은 이제 나이가 43세가 되었다. 서독문학은 역시 동독문학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날이 오늘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도 모른다.” 크리스타 볼프를 자신의 탁월한 대변자로 여기고 있는 동독문학은 연로한 서독문학과 더불어 사라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 서독문학을 대변한 작가가 누구이고 또 어떤 의식이 그것을 대변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문제의 문학논쟁에서 극렬히 자신에게 반대한 작가들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귄터 그라스와 발터 엔스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3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여전히 47그룹의 주변에서 서독문학의 공격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지만 그 주도권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도덕적이고 경교조의 태도’를 통해 스스로의 기념비로 고착화되었으므로 이데올로기적 순응의 견지에서 젊은 세대의 작가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자들이다. 반면에 유능한 젊은 작가들은 창작의 새로운 시도로써 독일 문단의 대변자들과는 이미 오래 전에 결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해서 쉬르마허의 이 긴 기고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유발시켰다. 그 이유는 유난히 미학적 자립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바로 47그룹을 꼬집어서 停滯性을 벗어나지 못한,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나 노쇠한 서독문학을 아직도 각인하고 있는 의식의 ‘산실’이라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쉬르마허의 기고가 반대한 것은 47그룹과 그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특히 문화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학적 좌파의 주도권 문제였다. 그는 독일통일과 더불어 역사는 동독과 서독의 문학적 좌파지식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그들은 진부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의 논거는 대강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논거는 동서독의 좌파지식인들이 사회적 폐해와 잘못된 권력구조를 항구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도덕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 사회주의의 총체적 권력기구에 대항하는 항쟁에서는 실패했다는 비난이다. 나아가 쉬르마허는 좌파지식인들의 문화적 위신을 또 다른 논거로써 실추시키는 시도를 한다. 이로써 그는 기존의 사회에서 저항적이고 역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지식인들의 자명한 요구를 겨냥했다. 사실상 그들은 서독에서도 역시 훌륭하게 기능을 행사하는 전후 사회의 대변자들이었다. “하지만 가령 그라스 같은 이 문학의 대변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그 문학은 반동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공중에 대항해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전설이나 자기기만에 속하는 일이다.”

아무튼 이런 양상으로 문학논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크리스타 볼프를 공격한 진영에서는 또 다른 논거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 논거는 결국 문제의 토론에 하나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단지 단초적으로만 표출된, 새로운 통일문학에 대한 쉬르마허의 기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소수문학을 지목한 것이었다. 즉 이 문학은 도덕적으로 자

주적이며, 비판적으로 뛰어난 주체일 수 있다는 환상과 사회적 대변성에 대한 司祭的 요구를 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그 후의 울리히 그라이너, 그 전엔 이미 칼 하인츠 보러(Karl Heinz Bohrer)에 의해 줄기차게 언표된 다음과 같은 비판, 즉 문학적 좌파는 미학적 기준들을 信條의 기준들로 대체했다는 주장과 노선이 일치했던 것이다. 1990년 11월 2일자 《차이트》지 기사에서 그라이너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인 ‘信條의 美學(Gesinnungsästhetik)’은 그 후 크리스타 볼프를 둘러싼 논쟁의 여기저기서 인용됨으로써 때로는 본의 아니게 악명을 떨치기에 이르렀다.

그라이너는 1990년 7월 27일자 기고에서 동독뿐 아니라 서독 지식인들도 ‘제 2의 독일적 파국’에 동참한 죄를 따지는 물음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입장과는 전적으로 모순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관정에 반대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효과를 분명히 드러낸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의 한 측면만은 그대로 견지했다. 그는 그 전 1990년 6월 22일자 《차이트》지에서는 서독 문학비평이 ‘동독문학을 특수한 조건하에서’ 다루었다고 비난했다. “동독의 문학 텍스트가 얼마나 용기 있고 또 얼마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당대회의 구호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들을 알고 있을 것을 추천했다. 해당 텍스트가 비록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라도 용기라는 요사스런 범주가 자주 문학적으로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기도 했다.” 권터 그라스의 《슈피겔 *Der Spiegel*》지와 대담도 그와 유사한 언급을 했다. “서독의 비평계는 수년간에 걸쳐서 동독에서 나온 책들을 특별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곳의 문학은 특별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생겨난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작가들은 대부분을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989년 11월말 이미 독일 TV의 유명한 프로 《문학의 4중주 *Das Literarische Quartett*》의 토론에서는 동독작가들이 SED 국가에 대해 여전히 암호화된 채로 표출하는 여하한 종류의 비판도 서쪽의 감체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다.

크리스타 볼프를 둘러싼 논쟁에서 결국 ‘신조의 미학’이 폄하적 개념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는 데 기여한 것은 역시 동독문학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독비평계가 표출한 이러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쉬르마허와 그라이너가 이 논쟁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논지를 지지한 보러의 후견일 것이다. 그해 10월에 발표한 촌평 “동독은 문화보호구역인가?”에서 《메르쿠어 *Merkur*》지 발행인인 보러는 볼프의 단편소설이 보여주는 ‘신조의 키치’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신조의 요구’에 앞서 언제나 ‘좌파적 中庸主義’에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예술적 기준들의 방어를 옹호한다. 이 촌평은 구체적 이름을 대면서 권터 그라스와 발터 옌스 및 보편적으로 ‘意義’에 책임이 있는 나이 많은 호위병들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다. 자신들의 역사적 시대가 분명히 종말을 고하고 있는 저 ‘독일적 지식인 유형’은 언제나 ‘예술 속에서도 미학 대신 형이상학을 위한’, ‘종교의 추종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계몽된 사회는 사제신분의 문필가를 알지 못한다. 크리스타 볼프는 그라스와 마찬가지로 역시

앞에서 암시된 동·서독의 사이비 종교적 성향을 지닌 작품낭독회의 방문객들 덕택으로 명성을 누려왔다. 이런 상황은 원컨대 지나갔길 바란다. 그녀 역시 세속화된 사회에서 문학이 서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즉 꺾박받는 자들의 마약 이어서도 안되고 또한 진정시켜주는 자장가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상상력의 잠재적 힘에 대한 보다 첨예한 요구이어야 할 것이다.” 보리는 《메르쿠어》의 같은 호에 실은 <미성숙성의 출구에 선 미학>이라는 비교적 긴 에세이로써 크리스타 볼프를 둘러싼 논쟁의 쟁론적 기고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미학을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급기야는 관념주의적이고 역사철학적인 후견으로부터 스스로 해방하는 자기해방의 역사”로서 기술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전적으로 미학적 근대의 전통 속에서 예술의 자율적 영역을 도덕, 철학 및 정치를 통한 미학 외적 의무부여로부터 극단적으로 해방된 것으로 보고자 한 보리의 논거에 그라이너는 단지 약간의 제약성만 지닌 채 접맥함으로써 편집진 내부의 반대자요 크리스타 볼프의 변호인인 폴커 하겐(Volker Hagen)이 처음부터 위치했던 지점에 당도한 셈이다. 왜냐하면 하겐은 1990년 6월 1일자 《차이트》지 기고에서 크리스타 볼프를 인격으로나 도덕적 심금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문학텍스트들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고, 또 이 텍스트도 다시금 동독의 심장부에 대한 통찰을 목표로 해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학적 관점, 즉 한 텍스트의 출판일정에 의존하지 않는 미학적 질을 향해서 읽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라이너가 내리고 있는 판결의 결론 부분에 가면 시각은 전적으로 도덕의 언어 쪽으로 매몰되고 만다. 크리스타 볼프가 이 텍스트를 바로 이 시점에 출판했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고유의 역사에 대한 정직성”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고 SED 국가가 자신들의 삶을 망쳐 놓은 반체제인사들에 대해 섬세한 감각의 결여도 노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논쟁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비트슈토크(Uwe Wittstock)로 하여금 1990년 10월 13/14일자 《쥐드도이체차이팅Süddeutsche Zeitung》지의 한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戲畫化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즉 그는 <도덕과 시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상적이지만 역시 현실에 가까운 한 시험 무대에서의 지배적인 문제 제기들을 회화화하고 그것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 기고는 ‘윤리와 미학’을 뚜렷이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술적 질은 일단 도덕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질과는 무관하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문필가가 반드시 훌륭한 인간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비트슈토크의 기고가 있는 지 2주 후 《차이트》지에 그라이너의 <독일적 신조의 미학>에 관한 기고가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치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거에 느닷

없이 정치적 신조와 도덕적 태도에 의거해서는 문학작품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본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논쟁에서 슈르마허와 그라이너가 취한 방향전환에 이어서 이제는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의 상응하는 선회가 뒤따랐다. 1990년 11월 8일자 《쥐드도이체차이퉁》 지에는 보러, 슈르마허 및 그라이너의 기고들을 냉소적인 어조로 논평하는 부셰(Jürgen Busche)의 기고가 등장했다. “아우슈비츠에 의해 충격을 받은 예술의 도덕은 이제 종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보러는 누구보다도 하이데거를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부셰는 보러가 왜 하필이면 30년대 중반 내면적 진실과 캠페인의 위대성을 놓고 나치당원들과 경쟁을 벌였던 하이데거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비판한다. 무한정 자주적인 통일독일에서 이제는 전혀 파렴치할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우파지식인들은 미학의 도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오로지 또 하나의 다른 신조를 선전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부셰는 적시하였다.

비교적 나중에 발표된 1991년 2월 3일자 《쥐드도이체차이퉁》 지의 한 기고에서 하이덴라이히(Gerd Heidenreich)도 이와 유사하게 ‘신조의 미학’이란 단어를 하나의 새로운 신조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투쟁개념’으로 평가했다. 이 개념으로써 “47그룹 이래의 비판적 서독문학이 소멸해 가야할 ‘망각의 피난처’가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윤리적 공간으로부터 예술을 추방”하려는 보러의 시도는 “전쟁이 그토록 멋진 연기의 소용돌이와 불꽃기둥들을 내포하고 있고 ‘포성과 부패의 악취’가 교향곡으로 합주하기 때문에 전쟁을 예술작품이라고 예찬한 마리네티 중심의 미래파 쪽으로 경도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거리”라고 했다.

그리하여 ‘신조의 미학’은 통일독일에서도 지식인들을 계속 갈라놓는 자극어가 되었다. 글로츠(Peter Glotz)는 1991년 4월 19일자 《차이트》 지에 발표한, 골프전쟁을 둘러싼 논쟁의 기고문 <문예오락난의 민족주의에 반대해서>에서 독일의 우파지식인들, 특히 칼하인츠 보러를 비난할 때 이 단어를 인용했다. “‘신조의 문학에 대해서는 마치 ‘평화운동’에 대해서처럼’ 유사한 초조감이 생겨나고 있다.” 허버마스도 1991년 5월 10일자 《차이트》 지에서 지금처럼 자신의 세대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벌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전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라고 칭했다. “‘신조의 미학’이라는 비난 하에 전후의 첫 몇 십 년 동안 이름을 떨친 문필가들이 ‘국가를 떠받치는 인물’로서 제거당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아무튼 지식인들의 갈등과 대립이 舊동·서독간의 이질감을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태가 불변적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문제의 일반성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 VI. 문화충격과 대안적 사상

여하튼 독일이 공식적으로는 통일되었다 하지만 진실로 독일인들의 머리 속에서 통일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할 때,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해질 따름이다. 독일의 통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외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실적 아이러니를 근원적으로 분석하여 그런 사정을 진단하고 설명하는 여러 접근법들 중에서 우리는 '문화충격'이라는 解法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다. 말하자면 독일에는 현재 두 가지의 상이한 문화가 서로 맞부닥트리면서 빚어낸 일종의 '충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이질감이 생겨나고 이에 덧붙여 극히 불만족스럽고 심지어 증오스럽기까지한 욕구불만과 위화감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회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총괄해서 '문화충격'이라고 정의할 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요법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 등, 이 단원에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파생된 갈등구조에 접맥해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일종의 종합적 처방을 거론해보고자 한다.<sup>7)</sup>

그런 처방에 입각해서 제시되는 행동지침에 따르면 '동·서독인들은 서로가 과감히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현재의 문화충격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아 동·서간의 차이점들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점진적인 이해의 훈련을 실천에 옮겨볼 것'을 요청 받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아직도 반감과 적대감이 상층일로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진단과 처방에 근거해서 서로가 인내하면서 그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심을 축적해 나갈 때 장차 한 세대 내지 두 세대를 넘기면서 서서히 반목의 극복기를 거쳐 상대방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해 본래의 정상상태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물론 현재 통일 독일에 사는 독일인들은 누구나 동·서독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에 있어서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출신 문화가 그것을 각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낯선 문화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자들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것들과 대면하게 됨으로써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일종의 문화충격을 겪는다. 이런 사정이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현재 동서독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통일이래 계속 피부로 느끼고 있다. 소위 東獨人으로서 '오시(Ossi)'들과 西獨人으로서 '베시(Wessi)'들은 각기 상대방을 지금도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고유의 출신 문화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동독인들은 자주 자신이 '패배한 새로운 종'처럼 여겨지는가 하면, 반대로 적지 않은 서독인들은 남몰래 장벽이 다시 원상 회복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인류학자 볼프 바그너(Wolf Wagner)는 '문화충격'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통일 이후 독일사회가 안고 있는 이질화의 부작용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응용하고자 한다. 그는 일련의 이국문화들과 비교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정문화권에서 일종의 정상상태

7) Wolf Wagner, *Kulturschock Deutschland*, Hamburg Rotbuch-Verlag 1996 참조.

나 다름없는 상황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거쳐가야 할 과정들을 유형별로 제시한다. 문화충격을 받은 독일인들의 경우 초기의 열광상태에서 출발해서 이질화의 단계를 겪으면서 그 피리가 절정에 달했다가 다시 극복기를 거치면서 급기야는 화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제시된다. 서독인으로서 자신의 직장생활을 동독에서 꾸려가는 학자인 바그너는 스스로 거기서 경험한 체험들에서 출발함으로써 다채로운 양상을 드러내는, 여전히 분단된 나라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말하자면 외형적으로는 통일된 이 나라의 주민들은 지금도 자신이 두 개의 서로 상이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옹고집은 ‘오시’와 ‘베시’라는 신조어 속에 각별히 부각되어 나타난다.

바그너가 들려주는 한 경험담에 따르면 다음의 일화가 그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sup>8)</sup> “저[동독인]들은 역시 저들의 출신지인 저쪽 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마땅할 게야.” 이러한 말을 바그너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약 일주일의 뒤 즈음, 19번 노선버스가 베를린의 쿠르튀르텐담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이나 지나쳐버렸을 때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베를린의 교통체계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베를린 주민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듯한 감이 들었던 것이다. 직장에 나가는 아침 길에 지하철은 거의 마비되어 버렸고, 정오에 이르러서는 아무 것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하철을 비롯해서 기차의 플랫폼과 객차는 초만원이었으므로 아무도 더 이상 내리고 탈 수가 없었다. 한 경찰관이 열차에 올라타려고 거리에서 몰려드는 인파를 향해 확성기로 이렇게 소리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발 이성을 찾아주십시오. 당신들이 먼저 객차에서 내릴 승객들에게 자리를 비켜줄 때 비로소 지하철은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을 서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당신네들은 동독에서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경찰관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건 역시 바그너가 들은 것으로서 舊동독인들을 보편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최초의 말이었다. 그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강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보낸 데서 생겨난 한 자세가 여기서 동독인들의 성격이 지닌 불변성으로 날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악의에 찬 조롱과 멸시로 간주해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독인들은 줄을 설 수 있는 반면에 서독인들은 그럴 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독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그 경찰관이 외친 호령의 배경에는 바로 그런 논리가 숨어있는 셈이다. 동시에 그 확성기의 외침에서는 그 뒤 몇 달 동안에 ‘오시’라는 단어를 구성한 한 가지 방법이 드러나게 되는 데, 그 방법을 바그너는 ‘추상적 연역법’이라고 부른다. 이 방법은 여하한 경험적 기반을 결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 즉 독재와 부당한 체제로서의 동독에 관한 온갖 가능한 추측과 실제적 지식이 그것의 조건으로서

8) 같은 책, 89쪽 이하 참조.



전제되고, 나아가서는 바로 그 전제가 40년 동안 차질 없이 인민들에게 작용함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각인했다는 가정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시’들은 역시 그렇고 그렇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동독인들은 40년 동안 부당한 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감각을 개발할 수 없었다는 추론이다. 또 그들은 40년 동안 순종해야만 했기 때문에 순진하고 비겁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동독인들, 즉 ‘오시’들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전혀 검토되지 않은 그런 일반화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매우 다양한 인간의 행동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런 이미지에 부응하는 인간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신속하게 한 차원 높은 경험판단의 인정을 획득하게 된다. 자의적 가설로부터 순수한 연역을 통해 생겨난 그것의 생성방식은 망각되고 우리는 자신의 현실인지에 있어서 순순히 그러한 접근방식에 경도되고 만다. 아무튼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특히 구성주의적 인식론의 추종자들이지만<sup>9)</sup>, 그렇다고 그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논거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이미 학습했거나 혹은 머리 속에서 구성된 모델이나 이론으로써 현실을 지각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이 확인될 수 있게끔 자신의 인지를 그렇게 형상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경험적 연구와 심리학적 실험들이 이러한 가정을 확인해주고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시’라는 개념의 밑바탕에는 억압받고, 순응적이며, 비겁하고, 애처로우며, 시대에 뒤진, 비생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편견이 깔리게 된다. 그리하여 이 개념은 불과 몇 주 내에 서베를린과 서독에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 개념에 대한 기본구도는 이미 장벽붕괴 후 처음 일주일 동안에 앞서 말한 그 경찰관의 확정기가 들려준 안내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개념은 그 후 많은 논문과 책에서 수없이 반복됨으로써 이제는 하나의 부정적인 상투문구가 되고 말았다.

같은 맥락에서 ‘베시’라는 개념도 역시 그런 선례에 따라 생겨났음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통용된 ‘Bundnis(연방공화국출신자)’라는 표현을 점차적으로 대체한 ‘베시’라는 개념은 서독에서 생겨난 표현이다. 사실 이 표현은 그때까지만 해도 서베를린 사람들이 순전히 베를린 태생이 아닌, 서독 출신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불렀던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서베를린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서독인들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베시’ 역시 ‘오시’처럼 평가절하적이고, 전제조건으로부터 파생된, 한 선입견의 순수한 연역적 구성체로서 둔갑하게 된다. 그러한 선입견은 선택적인 지각을 통해 현실에서 언제나 새롭게 확인되며, 반대되는 경험을 통해서도 반박될 수 없다. ‘오시’인이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사회주의’에 관한 전제조건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처럼 ‘베시’인 역시 자본주의에 관한 가설에서 생겨

9) Vera Nünning, Wahrnehmung und Wirklichkeit - Perspektiven einer konstruktivistischen Geistesgeschichte, in: *Konstruktivismus: Geschichte und Anwendung*, hrsg. von Gebhard Rusch und Siegfried J. Schmidt, Frankfurt a. M. (Delfin) 1992, S. 91-118 참조.

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쟁사회이며 따라서 ‘베시’인은 무자비한 이기주의자요 막무가내의 파렴치한이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성격의 편견적 의미인식이 현재 동·서독인들의 지배적 의식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은 결코 불변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새로이 관심을 갖는다. 일종의 체계이론적 인식론인 구성주의는 의미체계의 층위에서는 체계이론을 일종의 의미이론으로 간주한다. 極(端的)構成主義(Radikaler Konstruktivismus)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에른스트 폰 글라저스펠트(Ernst von Glasersfeld)에 의하면<sup>10)</sup> 구성주의는 지식에 대한 일종의 숙고로서 철저히 비전통적인 인식론을 지향한다. 이 경우 지식은 行動으로 상징되고 또 그것의 결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극구성주의는 지식과 존재간의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포스트인식론적 성격을 지닌다. 곧 그러한 변화는 관습적 개념인 ‘존재론적 진리’를 경험가능한 ‘실행가능성(Viabilität)’의 개념으로 대체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숙고방식을 광범위하게 재조직하는 결과를 낳는다.<sup>11)</sup> 이처럼 인식론을 진리이론이 아닌 의미이론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참된 인식의 조건들을 묻는 전통적인 물음을 의미의 조건들을 묻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미구성의 보편적 조건은 자기생산적, 자기지시적 의미체계가 온갖 종류의 기호학적 작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작동들 모두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또 미리 주어진 ‘지시(Instrukt)’도 아니다. 그것은 체계 내적 작동이라는 의미에서 ‘구성체(Konstrukt)’인 것이다. ‘인식이 무엇이며’ 또 ‘지식은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포스트인식론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글라저스펠트가 제기하는 핵심적 가설 몇 가지를 요약하면, 우선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짐짓 우리가 경험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경계 저편의 어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극구성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곧 인간의 구성체이다. 또 구성주의는 인식이 객관적 현실을 模寫하는 한, ‘진실하다’는 요구를 포기하며 어떤 지식도 결코 유일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확신을 함의한다. 달리 말해서 어떤 문제해결책이 아무리 실행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극구성주의는 인식의 문제에 대한 단지 하나의 대답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극구성주의는 인간을 인식의 발견자로 보는 畏敬의 人間像과 작별을 고한다. 그런 인간은 자신이 객관적 관찰자로서 발을 들여놓게 되는 세계에 관한 진리의 발견에 자신의 과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의 구성주의적 이론은 인간이성이 똑같이 위험한 두 가지 잘못된 추론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한다. 우선 그것

10) Ernst von Glasersfeld, Aspekte des Konstruktivismus: Vico, Berkeley, Piaget, in: *Konstruktivismus und Sozialtheorie*, hrsg. v. S. Schmidt, Stuttgart Suhrkamp Verlag 1994(stw 1099) 참조.

11) D. J. Krieger,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Systemtheorie*, München Fink-Verlag 1996, S. 155 이하 참조.

은 회의주의자들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성이 실제적 세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항상 이성을 평가절하했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비합리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극구성주의는 자신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반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독일통일이 가져온 온갖 부정적 부수현상들을 숙명적인 귀결인 양 치부하는 태도에 구성주의는 비판적일 수 있다.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극복되어 정상의 회복을 위한 과도기의 途上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현실을 숙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구성주의적 입장은 한낱 피안의 이념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는 인식론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우리는 차체에 체계이론이 기능분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한다. 의미를 체계로서 간주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물음을 ‘어떻게’라는 물음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합당한 문제해결책에 대한 안목을 열어준다. 어떻게 의미 내지 인식이 기능하는가에 대한 분석에 입각해서 어찌면 다른 의미와 다른 인식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고 물을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통일부작용을 구성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앞으로의 미래구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모든 지식은 인지하는 주체의 구성이라는 사실을 일단 수용했을 때 주체는 즉각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의 한계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큼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자율성에는 책임이 결부되어 있다. 우리의 지식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구성주의적 이념의 대변자들은 외부의 비판을 감안해야 하고 때로는 공개적인 적대감도 용납하지 않을 수 없다. 비판자들은 제기된 명제들의 진실 여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다. 바로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 포스트인식론적 사고의 성격이 지닌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요컨대 극구성주의는 스스로 단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다는 점을 요구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 가치가 전적으로 자신의 실행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체라는 요구인 것이다.<sup>13)</sup>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통일독일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논함에 있어서 구성주의적 태도는 결코 현실도피적 사고유형으로 치부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구성주의라는 범주에는 다양한 진영들이 존재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복잡한 통일현실과 그것의 예

12) Krieger, 같은 책, 170쪽 참조.

13) von Glasersfeld, 같은 책, 32쪽 참조.

기치 않은 부정적인 현실관을 소화하고 앞으로 正常을 되찾는 차분한 미래를 가늠해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식론적 접근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이 서술을 끝맺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Anz, Thomas(Hg.). 1995. *Es geht nicht um Christa Wolf-Der Literaturstreit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Verlag.
- Dittmer, Lothar/Siegfried, Detlef(Hg.). 1996. *Ost-West Geschichten, Schüler schreiben über Deutschland*. München Beck.
- Dubiel, Helmut. 1994. *Ungewißheit und Politik*. Frankfurt/M. Suhrkamp 1994.
- Habermas, Jürgen.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Bde. Frankfurt/M. Suhrkamp(서규환 외 역. 소통행위이론. 서울: 의암출판 1995).
- \_\_\_\_\_. 1984.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 Suhrkamp.
- Heitmeyer, Wilhelm(Hg.). 1994. *Das Gewalt-Dilemma*. Frankfurt/M. Suhrkamp.
- Krieger, D. J. 1996.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Systemtheorie*. München Fink.
- Luhmann, Niklas. 1981.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2Bde. Frankfurt/M. Suhrkamp.
- Nünning, Vera. 1992. "Wahrnehmung und Wirklichkeit-Perspektiven einer konstruktivistischen Geistesgeschichte." *Konstruktivismus: Geschichte und Anwendung*. hrsg. von Gebhard Rusch und Siegfried J. Schmidt, Frankfurt a. M. (Delfin) 1992. S. 91-118.
- Schmidt, S.J. 1987.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Frankfurt/M. 1987(stw 636), (stw 915). (박여성 역. 1995. 구성주의. 서울: 까치).
- von Glasersfeld, Ernst. 1994. "Aspekte des Konstruktivismus: Vico, Berkeley, Piaget." *Konstruktivismus und Sozialtheorie*. hrsg. v. S. Schmidt. Stuttgart Suhrkamp(stw 1099).
- Voßkamp, Wilhelm. 1995. "Literatur und Zeitgeschichte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Zur gegenwärtigen Literaturdiskussion in Deutschland." *AvH-Magazin* 65/1995.
- Wagner, Wolf. 1996. *Kulturschock Deutschland*. Hamburg Rotbuch.

## Linke Intellektuelle nach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und Radikaler Konstruktivismus als alternative Leitidee

Tschang-Un Hur

*Seoul National University*

Diese Studie behandelt ein heikles Problem, das im Rahm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alle Gemüter der linken Intellektuellen in Ost und West bewegt hat. Deutschland ist zwar vereint, aber seine Schriftsteller und Literaturkritiker scheinen sich immer noch in heftigem Streit zu befinden. An Christa Wolfs Erzählung *Was bleibt*, die Anfang Juni 1990 in der turbulenten Zeit kurz vor der offiziellen Wiedervereinigung erschienen und von der westdeutschen Kritik zuerst scharf angegriffen worden ist, entzündete sich ein heftiger Disput, in dessen Verlauf sogar die gesamte deutsche Nachkriegsliteratur für hinfällig erklärt wurde. Kaum ein Literaturstreit der deutschen Nachkriegsgeschichte hat so viel öffentliche Aufmerksamkeit gefunden wie der oben erwähnte. Im Grunde genommen ging es nicht um Christa Wolf: Die Auseinandersetzungen um Moral und Ästhetik, um die Vergleichbarkeit des SED-Regimes mit dem NS-Staat, um die Rolle des Intellektuellen, um den 'Utopieverlust' der Linken, um den Umgang westdeutscher Literaturkritik mit der DDR-Kultur, das alles bezeichnet die Schwierigkeiten, die das neue Staatsgebilde mit seiner Identität hatte.

Das eigentliche Ziel dieser Studie ist aus heutiger Sicht einen umfassenden Überblick über diese Problematik zu geben und daraus für unsere eigene Problematik in der Zukunft eine Lehre zu ziehen. Es ist nicht auszuschließen, daß diese Art Arbeit schon eine richtige Einschätzung der historischen Dimension der deutschen Verhältnisse ermöglichen kann.

Jeder ist in seinem Blick auf anderes kulturell befangen. Wer in eine fremde Kultur überwechselt, erleidet auf die eine oder andere Weise einen Kulturschock. Daß dies auch im selben Kulturraum möglich ist, haben die Deutschen in Ost und West seit der Wiedervereinigung erfahren. Osis und Wesis sehen die anderen nach wie vor durch die Brille der eigenen kulturellen Herkunft. Während die Ostdeutschen sich oft wie die "besiegten neuen Untertanen" vorkommen, wünschen sich nicht wenige Westdeutsche insgeheim die Mauer zurück.

Wir sind daher der Meinung, daß die Erkenntnislehre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für ein neues Verständnis des Problems behilflich sein kann, indem man den soziologischen Begriff des Kulturschocks auf das Deutschland der Nachwendezeit anwendet. Sicher sind die 'Kulturschockierten' gezwungen, die unterschiedlichen Phasen, z.B. von der Euphorie bis zur Entfremdung, zu durchlaufen. Auch wenn die kulturellen Unterschiede als Gegensätze über längere Zeit hinweg fortbestehen, kann man dabei dem Prozeß doch mit großer Ruhe und Gelassenheit seinen Lauf lassen. In der alltäglichen Kommunikation empfiehlt sich, die Unterschiede zu kennen und zu schätzen. Für die Bundesrepublik als Ganzes ist mit der Gewöhnung an die Fremdheit aber in nächster Zukunft kaum zu rechnen. Dennoch wird sich zwischen Ostdeutschland und Westdeutschland am Ende auf diese Weise sogar Humor und Toleranz einstellen. Denn Humor und die durch ihn ermöglichte Toleranz entwickeln sich meist auch durch schiere Gewöhnung. In dieser Hinsicht wäre 'Zeit' die beste Medizin.